내주 재개 DDA 협상 전망
〈도하개발아젠다〉

농업 분야 돌파구 마련이 관건

현안 많고 시한 짧아 타결 난망

27일 다보스 소규모 통상각료 회담에서 지난 7월 이후 중단됐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전면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내주부터 협상이 본격화된다.

일단 내주부터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주요 협상국들 사이의 양자협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서 제네바에서도 실무급 다자협상이 개시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다뤄야 할 현안이 즐비한데다 협상을 벌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아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날 통상각료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즉각 전면 재개 ▲농업 뿐 아니라 농업외 모든 협상의 동시재개 ▲주요국간 양자협상의 조기 진전 기대 및 전 회원국의 이익 반영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협상국들이 내심 바라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부활절 이전인 오는 4월초까지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이어 5월말~6월초 전면적인 협상세부원칙(modalities)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즉, 이번 다보스 각료회담을 계기로 되살아난 협상의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 4월초까지 최대 쟁점인 농업 보조금 및 관세 인하에 관한 타결을 지어 DDA 협상에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향후 1~2개월간의 동시다발적 집중 협상을 통해 농업 부문 등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부시 미 행정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를 설득해 6월말에 종료되는 TPA(신속협상권한)를 연장하고 그 후 이를 바탕으로 151개 WTO 회원국은 농업, 관세, 서비스, 반덤핑 및 상계 규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세부 쟁점을 타결지어 2008년초에 최종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면적인 협상 세부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협상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통상 관계자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렇게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내주부터 전면적인 협상을 통해 3월말~4월초까지 농업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다보스=연합뉴스

◇DDA(도하개발아젠다)=점진적인 시장개방을 규정한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시장개방을 가속하기 위해 논의 중인 새로운 다자간 국제교역 규범.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캐나다 "한국 쇠고기 수입금지 WTO 규정 위반"

캐나다 정부가 광우병을 이유로 2003년 6월 우리 정부가 취한 캐나다산 쇠고기 전면 수입금지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정 위반이라며 2월19일까지 그 금수조치의 법률적·과학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공식으로 요구해왔다.

돈 스티븐슨 주제네바 캐나다 대사는 지난 19일 최 혁 주제네바 대사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당시 우리 정부의 조치는 WTO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SPS 협정) 제3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보스를 방문중인 정부 고위 통상관계자는 28일 "관련 협정의 해당 조항을 거론하며 서면으로 공식 답변을 요구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캐나다측은 우리가 시한내에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 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WTO 제소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보스=연합뉴스

"이라크 미군 철수하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미군을 추가 파병할 계획인 가운데 수만명의 반전 시위자들이 주말인 27일 낮 워싱턴 시내에 운집, 미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할리우드 스타인 대니 글로버, 수전 서랜든-팀 로빈스 커플, 숀 펜 등 이라크 개전 이래 유명인사가 가장 많이 참가했다. 성조기로 덮힌 모의 관위에 군화 한 켤레가 놓여져 있는 워싱턴 내셔널몰 반전시위장의 제시 잭슨 목사(오른쪽)와 시위대. /로이터=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문 아프리카 콩고

'한국車 대령' 국빈 예우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

반 총장은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레바논 재건 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한뒤 유엔 항공기 편으로 26일 파리를 출발, 27일 새벽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에 도착했다.

킨샤사 도착 시간이 오전 1시20분이어서 이미 밤이 깊었지만 공항에는 민주콩고 내무·외무·국방 장관 등 3명의 장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와 유엔기구 관계자 등 100여명의 고위 인사들이 영접을 나와 반 총장을 반겼다.

반 총장을 태운 차량이 공항에서 킨샤사 시내로 향하는 길에는 장갑차가 호위하는 가운데 불빛을 밝힌 차량 행렬이 1㎞를 넘을 정도로 이어져 유엔 최대의 평화유지군이 있는 민주콩고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특히 민주콩고 정부측은 반 총장의 의전 차량으로 한국 쌍용자동차의 체어맨 승용차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이 차량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민주콩고 정부에 의전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 민주콩고 정부가 아프리카 순방 첫 국가로 자신들을 택한 반 총장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일정도 앙투안 기젱가 총리를 면담하고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았고 저녁에는 정부의 공식 만찬에 초청돼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보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 총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 오후에는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킨샤사 아동병원을 방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을 위문하기도 했다. /킨샤사=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7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를 방문, 아프리카에서의 지역분쟁 해결과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 반 총장이 이날 킨샤사의 아동병원을 찾아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기 못낳는 딸 위해
50대 할머니 아들 낳아줘

호주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딸을 위해 손자를 낳아준 할머니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빅토리아주에 사는 앙투아네트(54)로 대리모가 돼 딸 린(36)을 대신해 손자를 낳은 것이다.

호주 일간 헤럴드 선은 앙투아네트가 린의 난자와 사위인 폴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가진 뒤 지난해 3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그토록 고대해온 손자를 낳았다고 28일 전했다.

앙투아네트는 지난 8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했으나 실패를 거듭해온 딸을 위해 자신이 직접 대리모가 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것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아주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앙투아네트는 "내가 낳은 손자 카이는 나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딸 린은 "어머니가 그 동안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들까지 낳아주시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이란 인공위성 발사체 北 대포동 2호 복제품"

美 우주항공 전문지 제기

이란이 조만간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공위성 발사체가 작년 7월 북한이 발사했다가 실패한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복제품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의 우주항공군사 전문지인 '애비에이션 위크 &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최신호(1월29일자)에 따르면 알라오딘 보루제르디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최근 이슬람 신학생들과 종교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인공위성발사체로 성공적으로 개조했으며 곧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위성발사체가 어떤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인공위성 발사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 정보기관들은 이 위성발사체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거리 800~1천마일(1천500~1천800km)인 사하브 3 미사일을 개조한 것이거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사거리 1천800마일(사거리 3천200km)의 가다르-110 미사일 개량형 둘 중 하나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잡지는 밝혔다.

잡지는 특히 군사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시큐리티' 분석가들을 인용,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체가 사하브3 미사일을 개조한 것이라면 작년 7월 발사실험이 실패한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복제품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관측이 사실일 경우 그동안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 수출 뿐만아니라 각종 발사실험 자료 공유 등 긴밀한 미사일 기술협력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작년에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이란에서 재실시하는 셈이 된다. /워싱턴=연합뉴스

파키스탄 자살폭탄 테러 15명 숨지고 30여명 부상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 지역 시아파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27일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 4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저녁 시아파 성일(聖日) 아슈라 축제를 준비 중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테러리스트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즉각적인 조사를 명령했다고 파키스탄 APP 통신이 보도했다. /이슬라마바드·페샤와르AP·AFP=연합뉴스